

미조리 주 세인트
루이스-- “Q
대회장에 이르자 내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형제회
비오수사의 이
말은 이번
Q 대회에 모인
재속회원과 남녀
수도자들에게 이
대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마디로
전해 주고 있다.

이 개회미사는 6월 30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Airport Renaissance 호텔 연회장을 입추의 여지 없이 꽉 메운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비오신부는 이 대회의 주제인 “프란치스칸 영성의 회복”은 시의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재속회는 그에게 영감을 주며 프란치스칸 정신을 고취시킨다고 말하였다.

그는 기쁨과 환대는 재속프란치스코 영성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 그리고 재속프란치스코 회원들이 나왔습니다."라고 익살을 떨었는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세상에 재속회원이 단 한명이라도 존재하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재속회원들은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되살릴 원동력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한가지라도 하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자비의 회년에 Q 대회가 열리는 것을 상기 시키면서 비오 수사는 550 명이 넘는 청중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피하고 세상에 불을 짚이기 위한 도구가 되도록 "마음을 읽도록" 권고했다. 다시말하면 "다른 사람을 회복하려면 자신부터 회복하여야 한다."

이어지는 미사와 만찬에서, 국가형제회 회장 쟈 파커는 세계형제회장 티보르 카우서를 소개했고, 세계형제회장도 비슷한 논조로 대회 참석자들에게 기쁨을 경험하고 전파할 것을 권하였다.

**2016년 6월 30일 부터 7월 4일까지 미조리 주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Renaissance Airport 호텔에서 열린 제 19차 Q 대회에는 600 명이 넘게 참석하였다.
나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다.**

작가신부님의 꿈 나눔.

작은 형제회 소속인 Murray Bodo 신부님이 개인적으로 어려운시기를 겪고있을 때 St. Anthony Messenger 출판사로 부터 성 프란치스코의 관한 책을 쓰 줄것을 부탁 받았다. 신부님은 하지 못 할것 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그때 신부님은 교직에 있었고 다른 일 맡은것 때문에 굉장히 바쁜 스케줄에 사셨다. 그러자 출판사편집장은 신부님은 모든일을 그만두고 아씨시로 갈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6 월 30 일 목요일 저녁 퀸케니엘 총회에서 신부님의 강의를 듣고있던 회원들의 입에서 와 하는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신부님도 회원들에게 말하셨고 신부님도 편집장에게 그제안의 답으로 당연히 "Yes" 라고 했다. 아씨시 에 서 책은 저절로 쓰여지는 것 같았다. "저는 매일 아침에 글을 적었어요. " 글이 그냥 막 생각났어요. 누군가가 저대신에 글을 쓰는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그냥 글이 흐르는 통로 인것 같이 느껴졌어요." 라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책은 "Francis: the Journey and the Dream" 이라는 책이며 삼십만부가 팔렸다. 그때가 1972 년 이었고 그후 신부님은 서른한권의 책 작가경력을 가지게 되었다.

신부님은 퀸케니엘 에 오셨고 프란치스코재속회원들이 가장 열심히 신부님의 책을 읽는다고 감사해 하셨다. 그리고 최근에 신부님이 쓰시고 계시는 그분의 자서전 " Gathering Shards: A Francis-can Life" 에 대하여 우리들과 함께 나누셨다.

7 월 1 일 keynote 강사로 오신 작은형제회 소속 Dan Horan 신부님은 이번 퀸케니엘 총회에 참석한 595 명 회원들을 "Mercy and Minority" 자비와 작음이라는 여정에 우리들을 인도 해 주셨다. 신부님은 "창조와 가난" (Creation and Poverty) 에대해 강의 하셨고, 모든 프란치스칸 들은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과 보편적 형제애의 정신을 지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프란치스칸적 가난의 현실은 "영적가난" 이라는 말보다 더 뜻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아가는것 이라고 하셨다. " 우리는 프란치스칸 이 되는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프란치스칸 가족 관계는 수도회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프란치스코회재속회원들 이라는것을 분명하게 하셨다. "저를 "Dan" 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우리는 가족입니다. 저는 당신들의 형제 Dan 입니다. "

신부님은 복음적 소명이주는 기쁨과 도전을 언급 하셨고, 사부 성프란치스코는 복음적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것 뿐만아니라 다른사람들의 위에있지않는 작은자, 낮은자가 됨 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그것은 가난으로 부터 시작된다. 가난한이들, 불안정한이들, 고통당한사람들과 형제애를 나누고 모든 창조물의 존엄성을 인정하는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과 소명을 활기차게 하고 새롭게하는동안 우리가 해야할 일들입니다.

Holy Name province 관구 작은형제회 소속 인 Daniel P. Horan 신부님은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중 첫번 책 "Dating God" 주님과 데이트 이라는 책이였고, 최근에 출판된 책은 " The Francis-can Heart of Thomas Merton " 토마스머튼의 프란치스칸 영성. America 잡지 콜럼니스트 이며, 시카고 신학대학교 객원부교수 이시다.

레스터 신부 : 인간 관계를 쌓아올림 - 각성하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숲 키튼과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로 홈레스들에게 음식 나누는 봉사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봉사자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홈레스들에게 봉사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시작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나” 하는 점에 대하여 카푸친 수도회의 레스터 바흐 신부님께서 Q의 둘째 날 주제 발표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 이야기는,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안에서, 삼위일체 사랑에 뿌리를 둔 영성에서 시작하여,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불림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그대가 섬기는 사람에게 더욱 더 깊숙히 빠져들어 가면 갈수록,”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의 말은 이어진다. “다른 사람을 돕으려면 더 더욱 그대 마음 안에서의 심적 변화가 절실하게 일어나야 한다.”

레스터 신부님은 말을 이어 가신다; ‘여기서 나는 재속 프란치스코 칸들을, 다른 발표자들이 한 것처럼, 잘 한다고 추켜 세워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차리라고 재속 회원들에게 일깨워 주고 싶다.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경건한 마음가짐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뛰어 넘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행동 안에서 보여주는 쪽으로 과감히 방향을 바꾸라고 형제회원들에게 과감한 충고를 주고 싶다.’

“형제회원들도 어느 정도의 강한 마음다짐이 있어야 하겠다.” 라고 단호한 말씀을 하시면서, “프란치스코 사명의 중심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리하고도 깊은 관심과 행동으로 들어내는 뜨거운 동정심을 들어내야 한다는 범주에서 벗어 날 수는 절대 없는 것이다.”

*OFM*의 댄 호란 신부님은 태양의 찬가를 꺼내들면서, 7월 2일, 토요일, Q 주제 발표 제 2 강의를 시작하셨다. 강의 내용은 폭력주의를 거쳐 평화의 중재자의 자세로 바뀌어가는 프란치스코의 삶의 여정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의 이야기를 펼치신다.

프란치스코는 젊어서 기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 포로가 되는 냉혹한 현실에 얻어 맞고 말았다. 그러자 그의 삶이 바뀌어 갔으며, 서서히 복음의 참 뜻을 발견하고 복음적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갔다.

찬가에서는 태양, 달, 그리고 모든 자연 현상들이 제 자리를 잡아가며 맡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 가는 것을 노래하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댄 수사가 밝히려하는, 주제는 인간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진실해 질 수 있느냐 하는 점으로서, 바꾸어 말해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원죄”를 인간들이 어떻게 뛰어 넘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 분이 제안하는 바로, 비폭력과 평화의 중재가 프란치스코 전통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속 프란치스코 회칙에서도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

프란치스코가 된다는 것은 “세속의 윤리에 배반” 되는 자리에서 서는 것을 자주 의미 하기도 한다.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것은 “기본적인 부름: 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의 소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고 질문을 던지신다.

수사님께서서는 이 나라를 어렵게하는 폭력 세 가지를 지적하셨다:

1. 총기사고: 이 나라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33,626명의 사람들이 총기사건으로 죽어갔다.

이 총기사고의 대다수가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무기를 만지면서 사고로 자신이나 가족들을 실수로 죽이고 있다.

2. 사형제도. 최근 교황님께서도 죄를 이유로 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단호히 선언하셨다.

3. 우리 마음 속의 폭력. 여기가 바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서 인간성을 빼앗는 곳이다.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 판단과 편견이 아난가?

프란치스칸 전통의 중심점인 더 작아짐과 낮아짐을 복음적 사랑과 묵는다면 그러한 폭력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 아름다운 복음이여 !!!”

쏟아지는 충격에 놀라는 우간다의 한 프란치스칸 수녀:

프란치스칸들이 *Quinquennial Congress*를 마치고 헤어지기에 앞서 파견미사가 있고 난 다음 성 프란치스코의 작은 자매회(*LSOSF*)의 *Caritas Barajingitwa* 수녀님이 앞으로 나와서 우간다에서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즉석 후원금에 대하여 누시울을 밝히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그 날 일찌기, *NAFRA* 프로그램 공동사회자 밥 스트로넬 형제가 연단 앞에 나와서 모든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 청중 가운데에 계신 한 분이 에이즈 전염병으로 뿔어져 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가정들을 돕기 위하여 직업 훈련을 겸한 고아원을 열었고, 또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한 그녀의 사업계획이이 우리나라의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지난 가을에 정의, 평화, 화합을 위한 운동단체에서 제정한 상을 이분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밥은 \$20.00 지폐를 한장 꺼내들어 카리타스 수녀에게 주며 Q 참석자들에게 함께 동참하도록 초대하였다. 순식간에 재속회원들과 수도자들이 줄을 이어 나와서 현금이나 수표를 건네주면서 수녀님을 포옹하고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이 모금활동은 계속 되었고, 그 자리에서 스산 시메오네 Q의장은, '카리타스 수녀가 총 \$6,556.95을 즉석에서 받고 감격의 눈시울을 붉히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모금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가장 프란치스칸적인 교황의 회칙

Quinquennial 총회 셋째 날, Keith Warner, OFM 은 강론대에서 " '찬미받으소서'는 지금까지의 교황 회칙 중에서 가장 프란치스칸적입니다."라고 말하며 "맞습니까?" 하고 청중의 동의를 청했다. 청중들은 우물거리며 "예."하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Keith 수사는 다시 소리를 높였다. " '찬미받으소서'는 지금까지의 회칙 중에서 가장 프란치스칸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자 청중들은 "예." 하고 큰소리로 외쳤다.

프란치스칸적인 보물로 가득 찬 회칙에 대한 Keith 수사의 특별 주제 발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프란치스칸적인 시기에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지금까지의 어떤 회칙에서 보다는 이 회칙에서 특별하게 다루어집니다. 성인은 지금 21 세기 현재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범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자연과 하느님,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상대적이고 포괄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생태'의 좋은 예로 프란치스코 성인을 들었다.

Keith 수사는 또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과 "지구의 부르짖음"의 연관성을 말하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고서는 지구를 돌볼 수가 없고, 지구를 돌보지 않고서는 가난한 이들을 돌볼 수 없다.' 고 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그는 윤리에 대한 프란치스칸적인 접근방식을 회칙이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자연이 갖고 있는 존엄과 가치를,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세상을 보는 배려의 윤리로 변환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는 회칙 안에서 여섯 가지의 프란치스칸 보물을 찾아볼 것은 권장했다.

1. 하느님을 자연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회칙은 생태 영성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2. 인간과 지구의 관계는 하느님에 대한 찬미와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로 정의 내려야 한다. "많은 전통적인 환경론자들은 피조물을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
3. 공동선은 전 세계적인 것으로, 협력적인 접근과 대화가 필요하다.
4. 경제 정의와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은 손과 손을 잡고 함께 해야 한다.
5.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이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며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은 영적 훈련이다. "우리의 전통에서는 아름다움이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다."
6. 우리는 생태 변환을 위하여 불렀다. 그는 "생태 변환은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보다 큰 창의성과 열성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 거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물로 봉헌하도록 고무시킨다"라고 하였다

Fr. Dan: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만 과연 누구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복음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은 대체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에 더 잘 응답하기 위해서 안주하고 있는 자리 밖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Dan 신부님이 7 월 3 일 주일인 Quinquennial Congress 에서 신부님의 마지막 3 번째 주요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인종 차별주의와 외국인에 대한 혐오에 관한 신부님의 주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지금 Q 행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곳이 인종차별의 상징이며 온상인 Ferguson 에서 3.8 마일 떨어진 곳을 지적하시면서,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와 제도적 구조가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댄 수사님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시대의 권력 구조,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끊고), 복음적 가난을 끌어안고 본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가장 낮은 이라는 생각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인과 그의 동료들은 더 낮고 더 작은 자로 살았습니다. 예를들면 성인은 나병 환자들을 끌어 안기위해 교회와 사회적 관례 그리고 사회적 관습을 거슬러 나아가셨습니다.

댄 신부님은 인종 차별은 지난 시대에서 나병 환자라는 단어와 같은 일촉즉발의 힘을 가졌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인종차별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한개인의 비열한 행동을 지켜보는 것을 뛰어넘어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문화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경험에 의해 영구하게 자리잡게 되는 태도와 편견과 연결되는 좀 더 복잡한 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 반창고는 살색으로 만들어 팔려나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사형수 중에는 유색인종의 수감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는 제도적 불의와 뿌리 깊은 편견을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프란치스코로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서로의 경험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소를 사는 우리는 부당함에 저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혐오에 맞서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지금 사람들처럼 차별적인 견해를 가진 세상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사회와 교회의 규정은 나병환자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거리를 지나갈때 종을 치며 가게하여 다른이들에게 알리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그런 관습을 깨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있으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무슬림 형제자매들과도 유대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이나 지배하려는 갈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인간성에서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Dan 수사님은 외국인 혐오를 종교, 성적성향 그리고 민족주의로 분류하여 범주화하면서 프란치스코는 이런 것에 맞서 일어서고, 거리낌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며 “복음의 증거자로서, 위험을 무릅 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Q 총회 마지막 날인 7 월 3 일 일요일, 주 연사로 나온 국가형제회 정평환 분과장인 캐로린 타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란치스칸에게는 사랑과 기쁨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십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사랑을 찾아 보세요. 사랑과 기쁨만 있다면 우리의 프란치스칸 성소는 활활 타 오를것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거기 참석하신 620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나고 물었다. 청중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정평환 분과장은 강조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기심도, 자존심도, 허세도 아닌 바로 능력입니다." 그녀는 또 덧붙여 말하기를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크신 하느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작게 처신합니까?" 캐로린은 제안하기를 "당신이 가장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좋은 모습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표양을 보이십시오. 그 일을 프란치스칸답게 기쁘게 하십시오. 어려울 때도 있겠고, 비록 지옥같은 때도 있겠지만, 참고 견디면 결국은 지옥 불에서 살아 나올 것입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어디를 가든, 복음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양을 보여 주며 그들의 신앙심을 북돋아 주십시오." "프란치스칸 기쁨과 프란치스칸 평화를 이 중에 몇사람이나 지니고 있습니까?" 하고 그녀는 큰 소리로 물었고 청중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쉬지 말고 항상 신앙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말하기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기도의 힘과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이번 Q 총회 에서는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줄 사랑의 백을 만들었다. 세인트 루이스에 사는 수많은 노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이번 19차 Q 총회 사랑의 구호백 덕분에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 Q 총회 공동의장인 케이트 클라이나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세인트 루이스에 와서 보람있는 일을 하고 갑니다.” Q 총회 참석자들은 다 같이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먹을 것과 개인 용품이 들어 있는 사랑의 백을 준비하였다. 그안에 넣을 물품은 미국 전역의 프란치스칸들과 기업에서 기부받은 것이다.

실제로 금요일에는 수 많은 프란치스칸들이 "사랑의 백" 속에 여러가지 간식거리와 먹거리, 양말, 개인 위생용품등을 담고 있었다. 사랑의 백이 61 상자, 먹을거리와 비누와 샴푸를 넣은 좀 큰 백이 40 상자, 101 상자는 성안토니오 급식소에 전달 했는데 그 급식소는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노숙자를 포함하여 800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급식을 하는 곳이다.

생각지 못한 이 선물에 깜짝 놀란 급식소 책임자이자 프란치스칸 수녀인 카니 푸롭스트가 그날 저녁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속회에서 구호품 백을 전달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차를 타고 와 보니 차에 다 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서 백을 가지고 다시 왔다고. 그리고는 수녀님과 급식소 봉사자 재니 바톤은 4000 파운드쯤 되는 구호품을 백에 빈틈없이 쌓아 넣었는데 사랑의 백이 무려 1000 개 이상은 족히 되었을 것이라고.

클라이나트는 그 사랑의 백속에 이런 메세지가 적힌 카드를 같이 넣었다. "당신들에게 나누어 줄 이 사랑의 백을 만들고 있는 동안 우리는 줄 곳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항상 기도 중에 기억할 것이고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당신들을 돌 봐 달라고 청할 것입니다."

열 아홉번째 Q (quinquennial, 오년마다 열리는 회의) 는 넘치는 프란치스코적인 기쁨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국가 평의회 회장인 젠 파커 (Jan Parker, OFS)는 글로리아 게이너 (Gloria Gaynor)의 “나는 살아남을거야 (I will survive)” 특별 연주를 큰소리로 노래함으로써 청중들에게 환호와 웃음을 남겼습니다. 다만 그녀의 가사가 “우리는 새로이 부흥했다”로 바뀌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흥분의 도가니는 회의의 마침 미사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일동안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라고 미사 집전 사제인 크리스토퍼 신부님(Christopher Panagoplos, TOR)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할때, 행복이 피어납니다. 우리는 댄 (Dan Horan)신부님과 이 여정을 함께 했고,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보속으로 돌아갑니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자신을 재속인 - 원조 보속의 형제 자매들 - 이라고 여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기도,청빈, 겸손, 속죄”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옹호했던 네 가지 덕이며, 그것이 오늘날 프란치스코적 삶을 특성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수도회의 흡입력(카리스마)는 삶의 전환/변화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이 계속적인 삶의 변화가 표현되니까?”

그 답은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가난한 자, 노숙자, 상처입은 자, 실업자들을 돕는 것.. 목록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배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째든 하느님의 계획 안에는 모든 사람 하나 하나가 포함되어 있으니깐요.

국가 평의회장 젠 파커(Jan Parker, OFS)가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를 Q 의장, 수전 시미온(Susan Simeone)이의 박수에 맞추어 특별 공연했다.